
 국토교통부	<h1>보도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7. 12. 22. (금) 총 2매(본문2)	
담당부서	항공산업과	· 과장 성호철, 사무관 좌명한, 주무관 조성용 ☎ (044) 201-4223, 4228	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에어로케이, 플라이양양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 반려 결정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2월 22일 에어로케이, 플라이양양 2개사의 항공운송사업자(국제·국내) 면허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.
- 에어로케이는 6월 26일, 플라이양양은 6월 29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하였고, 국토부는 심사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, 전문가 검토,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다.
 -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계획상의 미흡사항(수요, 재무능력, 노선 계획 등)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였고, 해당내용 보완 제출 및 보완 자료 추가 검토 등을 위해 신청사 동의를 받아 심사 기간을 연장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.
- 12월 21일 개최된 면허 자문회의에서는 2개사 모두 일부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면허 반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.
 - * 항공사업법령상 면허요건: ①자본금(150억원), ②항공기(3대), ③재무능력, ④안전, ⑤이용자편의, ⑥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, ⑦결격사유(외국인 지배금지 등)
 - 에어로케이는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, 청주공항 용량부족 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애로, 이에 따른 재무안정성 부족 우려 등이 제기되었고,
 - 플라이양양은 충분한 수요 확보가 불확실하고, 이에 따른 재무안정성 부족 우려 등이 지적되었다.

- 아울러,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항공시장 여건상 면허기준 등 관련제도를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·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.
 - 저비용항공사의 취항 가능지가 한정*되어 있어 노선 편중이 심화되고 있어 과당경쟁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, 취항 희망 공항의 슬롯(Slot) 확보도 불확실한 문제가 있으며,
 - * 동북아시아 지리적 특성상 단거리 기종을 활용하는 저비용항공사의 취항범위 한계
 - 이미 기존 8개 국적항공사가 존재하고, 공항시설이나 조종사 등 인프라는 충분치 않아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항공사 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.
 - 에어로케이, 플라이양양 외에 추가로 진입을 준비 중인 업체들도 다수 있으나, 면허 기준은 저비용항공사 태동기에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본금, 항공기 등 기본요건이 완화된 것이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여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.
 - 자문회의는 기존 저비용항공사들의 사업 초기 경영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등록 자본금이 사업 초기 최소 운영자금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고, 항공기 보유 대수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.
- 국토부는 자문회의 의견과 법정요건, 시장상황 및 제반여건 등을 종합하여 2개사의 면허 신청을 반려하기로 하였고, 동시에 자문회의 제시 의견대로 면허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.
 - 향후, 국토부는 신규 사업자가 경쟁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 요건인 자본금, 항공기 기준을 상향하고, 운항증명*(Air Operator Certificate: AOC) 단계에서도 중대한 안전상의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등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.
 - * 인력·장비 등 점검, 현장실사, 시험비행 등 운항체계 정밀검사(취득 전 취항 불가)
 - 또한, 재무개선명령 제도 강화 등을 통해 부실 항공사의 퇴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, 슬롯·운수권 관련 제도도 더욱 공정하게 개선하기로 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좌명환 사무관(☎ 044-201-422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